

“학생들 인재로 성장, 완도발전에 도움 됐으면”

‘우아한계’ 들 김봉진 의장, 완도 장보고장학회에 통 큰 기부 중·고등학생들에 16억7천만원 상당 태블릿PC 1838대 전달

‘완도 군민의 상’ 수상자인 (주)우아한계제들의 김봉진 의장이 (재)장보고장학회에 통 큰 기부를 했다. 김 의장은 지난 31일 완도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태블릿PC 1838대를 기부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억7000여만원으로 (재)장보고장학회 설립 이후 역대 가장 큰 기부다. 태블릿PC는 제50회 완도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 중인 김봉진 의장을 대신해 부친 김옥준씨가 참석해 전달했다.

김옥준씨는 “완도를 위한 뜻깊은 일을 하려고 생각했다”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완도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태블릿PC를 선물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보고장학회 이사장인 신우철 완도군수는 “통

큰 기부를 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김봉진 의장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장학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 소안면 출신인 김 의장은 2010년 자본금 3000만원으로 우아한계제들을 창업하고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을 중심으로 사업을 넓혀 10여 년만에 기업 가치를 약 4조 7000억원으로 끌어올린 한국 스타트업의 대표적 인물이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으며, 세계 기부 클럽인 ‘더기빙플레지’ (The Giving Pledge)에 아내인 설보미 씨와 함께 한국에서는 처음, 세계에서 219번째 기부자로 등록됐다. ‘더기빙플레지’는 10억 달러(약 1조 10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배달의 민족 창업주 김봉진 의장의 부친인 김옥준(가운데)씨가 지난 31일 50회 완도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아이들이 기증한 태블릿 PC를 장보고장학회 이사장인 신우철 완도군수에게 전달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전주대사습 판소리 장원 목포 출신 양혜인 씨

“게을리하지 말고 발표회는 대회든 꾸준히 하라는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47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 양혜인(33·사진)씨는 31일 장원기를 흔들며 이같이 수상 소감을 밝혔다.



목포 출신인 양씨는 이날 출항가 중 ‘이별 후 임그리는 대목’을 불러 장원을 차지해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6000만원을 거머쥐었다. 여성 농악을 꽃피운 유순자 선생이 어머니였던 양씨는 뱃속에서부터 국악 소리를 듣고 자랐다. 양씨는 어릴 적부터 농악 소리나 풍물 소리를 들으면 몸이 살랑살랑 움직였을 정도로 ‘국악 신동’으로 불렸다. 유순자 선생은 그런 양씨를 구례에 잠깐 소리를 가르치려 온 이난초 명창에게 데려갔고, 그때부터 양씨는 그에게서 26년간 가르침을 받았다. 목을 뚫고 소리를 내야 하지만 마음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그를 버티게 해준 것도 이난초 명창이었다.

양씨는 “힘들 때마다 ‘똥러라 하는 마음으로 일단 소리를 질러내라’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잡았다”고 울먹였다.

2017년에 남도민요경쟁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올해 춘향극대전에서 판소리부 최우수상을 받았던 양씨는 전주대사습대회는 올해가 첫 출전이다. 지난해에는 일정이 맞지 않아 나오지 못했다가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꾸준히 대회를 나가라’는 스승의 권유로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양씨는 “장원 수상을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예산 통과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다”며 영광스럽게도 장원을 받게 됐다”고 기뻐했다. 양씨는 앞으로 ‘소리를 정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꾸준히 정진해갈 예정이다. 그는 “어떤 소리가 될지는 정말 어려운 숙제”라면서 “항상 인성이 되어야 하고 겸손하면서도 자신 있게 소리를 하라는 스승님의 말을 따르며 정진하고 싶다”며 밝게 웃었다. /목포=윤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서광주 우체국 ‘우정사랑 릴레이 챌린지’ 동참



서광주우체국(국장 임영일)이 최근 ‘우정사랑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고 늘푸른요양원과 희망나눔 푸드마켓에 식자재 및 생필품(25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우정사랑 릴레이 챌린지’는 전남지방우정청이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전남지방우정청 제공>

캠코 광주전남본부, 스타트업센터에 디지털카메라 기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송중의·사진 오른쪽)는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 창업지원센터 ‘서구 START-UP Center’에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디지털카메라를 기증했다.

이날 문을 연 ‘서구 START-UP Center’는 창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창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창작 공간으로 조성됐다.

캠코는 시제품 촬영과 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사용하게 될 30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기증했다.

송중의 본부장은 “광주 청년들의 취·창업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장비를 기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창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번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속아도 꿈결(재) 40 지구촌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속아도 꿈결(재) 40 지구촌 뉴스	45 목표가 생겼다(재)	10 SBS 뉴스 30분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이슈 픽셀과 함께 스페셜 50 한국의 인류유산 55 UHD 습터	00 대박부동산(재)	00 12 MBC 뉴스 20 치치핑핑 시즌3 50 뽀빠이 친구 친구 스페셜	00 애니갤러리 30 헬로카봇10 45 하나와 숲속친구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영화가 좋다(재)	00 12 MBC 뉴스 20 치치핑핑 시즌3 50 뽀빠이 친구 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KBC 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재) 45 내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투더유지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0 영성앨범 신(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푸르기식사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덕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20 열린채널 광주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특보 25 팔도밥상 스페셜(재) 55 운동맛집 5분 레시피 2회(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보토스 패밀리(재)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행복설계 알짜배기(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V-우주수호대 15 종알종알 돌돌이 30 골쟁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덕터 365 55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테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TV는 사랑을 싣고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대박부동산	20 마녀들 시즌2	00 펜트하우스 3 히트콤-끝의 시작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트롯 매직유랑단	30 라디오스타	30 백종원의 골목식당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통합뉴스룸 ET(재)	10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05 나이트라인 35 KBC 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샤와 곰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5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7:45 역사놀이매 아리아리
07:00 코코몽2	12:10 극한직업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
0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05 드래곤 길들이기: 세상 끝으로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10 EBS 다큐프라임	19:35 자이언트 팽TV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05 지식채널e(재)	19:50 가족이 맞습니다
08:00 당당명 유치원	15:15 클래스 e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출동! 슈퍼윙스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동남아 힐링 트립-낯선 매혹 동티모르)
08:45 한글용사 아이야	15:50 가만히, 10분(재)	21:30 한국기행
09:00 시몽	16:0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여진 몰랐지 3부 해리의 정원에 놀러 오세요)
09:15 봉구야 말해줘2	16:15 개구쟁이 조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물랑	16:30 당당명 유치원	22:45 바닷가 사람들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몬데이	23:35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일(음 4월 22일 辛巳)

<p>36년생 길흉이 혼재하면서 변화무쌍함을 보일 것이다. 48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60년생 흥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72년생 중간 점검과 대조가 절실해 요망된다. 84년생 목격의식을 분명히 해야만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96년생 시계가 흥흥하니 상당한 애로가 따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5, 80</p>	<p>42년생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시점임을 알라. 54년생 불만을 감수하고 있노라면 길사가 펼쳐지리라. 66년생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다면 최상이다. 78년생 우려 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리라. 90년생 일반적이지만 못하다면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02년생 구체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54</p>
<p>37년생 빠짐없이 자세히 살펴 볼 일이다. 49년생 원점에 서부터 다시 한 번 뒤돌아다보라. 61년생 금전에 집착하다 보면 더 큰 의미를 잃게 됨을 감안하라. 73년생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처하였을 때 성사의 가능성을 높게 된다. 85년생 보편타당해야만 설득력을 얻게 된다. 97년생 가변게 넘겨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행운의 숫자 : 10, 65</p>	<p>43년생 마음이 더 나으니 마음을 잘 다스려라. 55년생 절대로 간담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67년생 진행 방향으로 부터 정해 요인이 드러난다. 79년생 결과보다 진행 과정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91년생 제3의 요소가 개입되면서 복잡해지지만 한다. 03년생 구체적인 언급이 수반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 행운의 숫자 : 41, 57</p>
<p>38년생 암초만 주의한다면 무난하게 임할 수 있느니라. 50년생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62년생 예측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74년생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느니라. 86년생 하찮게 여겨 왔던 바가 행운과 연결 되는 형국이다. 98년생 단일한 목적 아래 모여드는 이들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0, 88</p>	<p>32년생 사회적 통념으로 판단하면 무난하리라. 44년생 신중해야만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56년생 판단이 섰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68년생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80년생 현실성 있는 설계가 지속적인 노력 속에 희망이 싹트리라. 92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잡아야 할 일 이상 없다. 행운의 숫자 : 14, 82</p>
<p>38년생 암초만 주의한다면 무난하게 임할 수 있느니라. 50년생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62년생 예측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74년생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느니라. 86년생 하찮게 여겨 왔던 바가 행운과 연결 되는 형국이다. 98년생 단일한 목적 아래 모여드는 이들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0, 88</p>	<p>33년생 유혹을 뿌리치고 매한 가지로 나아가라. 45년생 상호간에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57년생 확신은 서지 않는다면 피하는 것이 옳다. 69년생 먼 곳으로부터 오는 희소식을 잡으리라. 81년생 오매불망하며 학습고대 해오던 것을 마침내 이루어라. 93년생 계획이란 구체적인 내용성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9, 74</p>
<p>40년생 이동수가 비치니 채비하라. 52년생 평상시대로만 진행한다면 무난한 결과를 낳으리라. 64년생 구태의연함에 서 벗어나 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76년생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우회해서 비유함이 더 낫다. 88년생 작기에 적용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00년생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46, 60</p>	<p>34년생 속뜻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무의미 하느니라. 46년생 필수적인 것이 빠져 있어서 당황하겠다. 58년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편하다. 70년생 부실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82년생 짐작을 버리고 자유로운 상태로 놔두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94년생 과대평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13, 68</p>
<p>41년생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매어 있다. 53년생 중복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년생 자가답답하게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77년생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여 왔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89년생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1년생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00, 96</p>	<p>35년생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만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47년생 굳게 닫혔던 문이 신비롭게 열릴 것이다. 59년생 학습고대하여 왔던 희소식을 잡으리라. 71년생 진행하는 방식이 구체적이어야만 설득력을 갖는다. 83년생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 잡히는 것이 있으리라. 95년생 대변한 행동을 보일 때다. 행운의 숫자 : 12, 79</p>